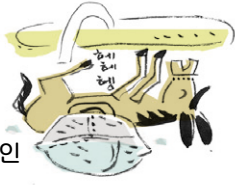


웃둥 보살 빛둥 거사 <48>

구성 : 김흥민



말하는 원앙새

<백유경(百喻經)>

옛날 어느 나라의 명절에는 부녀자들이 꽃으로 머리를 장식하는 풍습이 있었다. 가난한 집 아내가 남편에게 말했다. "당신이 우트팔라꽃을 얻어 주면 당신의 아내로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버리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꽃을 훔치기 위해 궁궐 뚫에 들어가 원앙새 우는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때 뚫을 지키는 사람이 물었다. "뚫 가운데 그 누구냐?" 그는 실수로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원앙새입니다." 뚫 지키는 그를 붙잡아 왕에게 갔다. 그가 다시 원앙새 소리를 내자 연못 지키는 말했다. "지금 원앙새 소리를 내어 무엇 하느냐."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도 이와 같다. 죽을 때까지 살생하면서 온갖 악업을 짓다가 임종 때가 가까워서야 비로소 말한다. "나도 지금부터 착한 일을 하고 싶다." 그러나 옥졸이 그를 데리고 가서 염라왕에게 넘기면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자 하나 이미 때는 늦어 그럴 수가 없다.



옛 판화의 세계

신희 스님이 남방을 참문하다 신희남참(神會南參)

<석씨원류>에 등장하는 이 삽화는 신희 스님이 조계산에 올라 육조 혜능 스님으로부터 법을 이어 받는 장면으로 조계산의 아름다운 풍광과 혜능 스님이 바위굴에서 사미인 신희 스님을 제접하는 모습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하택 신희(荷澤 神會) 스님(684~758)은 당나라 양양(襄陽)인으로 속성은 고(高)씨이다. 국장사 호원 법사에게 출가했으나 14세 때 사미의 신분으로 혜능 스님을 찾아가 법을 이어 받은 후, 북종선의 배경에 주력하며 남종선의 확립에 크게 기여했다. 스님은 개원 20년(732) 정월 15일 황대(滄臺) 대운사(大雲寺)의 무차대회(無遮大會)에서, 남종선(南宗禪)의 정통성을 주장하며, 북종선(北宗禪)을 대표하는 승원 법사(崇遠法師)와 정통논쟁을 벌인다. 이러한 신희스님의 노력으로 북쪽의 신수와 남쪽의 혜능의 종파적 분리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신수의 북종선(北宗禪)과 혜능의 남종선(南宗禪)이라는 명칭이 널리 쓰이게 됐다. "혜능 선사가 신희 스님에게 물었다. '어느 곳에서 왔는가?' '온 곳이 없습니다.' '너는 돌아가지 않겠는가?' '한 곳도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너는 너무도 망망하구나.' '몸의 인연이 길에 있습니다.' '스스로 이르지 못한 곳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도 이미 이르렀습니다만 또한 체류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몇 해 동안 조계산에 머물다가 그 후 두루 이름난 고적지를 찾아보고 이어 낙양에서 크게 선법을 행해 명성과 광채를 발휘했다. 이에 앞서 동경과 서경에서는 모두가 신수 스님을 좋아하기를 마치 맑은 물에 물고기와 바



고려판 화엄경(華嚴經) 권제10 신회(神會) 남방(南參) 판화(牛印) 27.2x18.0cm

다고기가 깊은 용소(龍沼)에 빠져드는 것과 같다. 그러나 신희 스님이 마음을 밝히는 것을 보게 되면서부터 육조 대사의 도공이 그들 점수(漸修)의 도를 짚어주어 남북의 두 선종이 비로소 갈라졌다." 이 같은 스님의 노력은 결실을 맺어 이후 남종선이 선종의 절대적 우위를 점하게 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나 모호하게도 스님은 사후에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 이유는 마조도일(馬祖道一)이나 임제(臨濟)의 등으로 계승된 남악회양과 청원(淸原) 문하의 선법이, 중국인 자신의 토양에 맞는 '중국선(中國禪)'으로 발전한데 있다. 달마(達磨)의 정제라고 시종일관 강조된 스님의 선법은 종밀(宗密)만이 그 명맥을 유지했다. 신희 스님(명주사 고관화백관장)



시가 있는 도량

용기

별자리 청청 감은 가마터 하늘 위에
초신성 맺줄자락 흰 연기로 연결되고
물레 틀 긴 호흡 따라 또 다른 은하가 돈다

뼈 녹는 불꽃 무늬 천정에 화인 찍는
팽창의 정점에서 내 숨결로 간을 본다

털 삭힌 머리저락에 등등 뜨는 맑은 별...

북극성 소인 찍힌 황소자리 고삐 들고
흠빛이 흠빛에 착는 이 길 넘어선다면
협계의 불가마 속에서 눈을 뜨는 등신불.

-이승현(제18회 나래시조문학상 수상작)

45인승 최신행 관광버스 무료지원합니다!



삼사순례 · 방생법회

순례지

- 1 금산 보석사, 무주 안국사, 영동 영국사
- 2 관촉사, 개태사, 쌍계사
- 3 갑사, 신원사

방생지

- 1 금산 부리면 적벽강
- 2 영동 양산 금강상류

언제든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소장: 정성운 / H.P: 010-5541-5535 / TEL: 070-7764-9002
금산인삼영농조합법인

